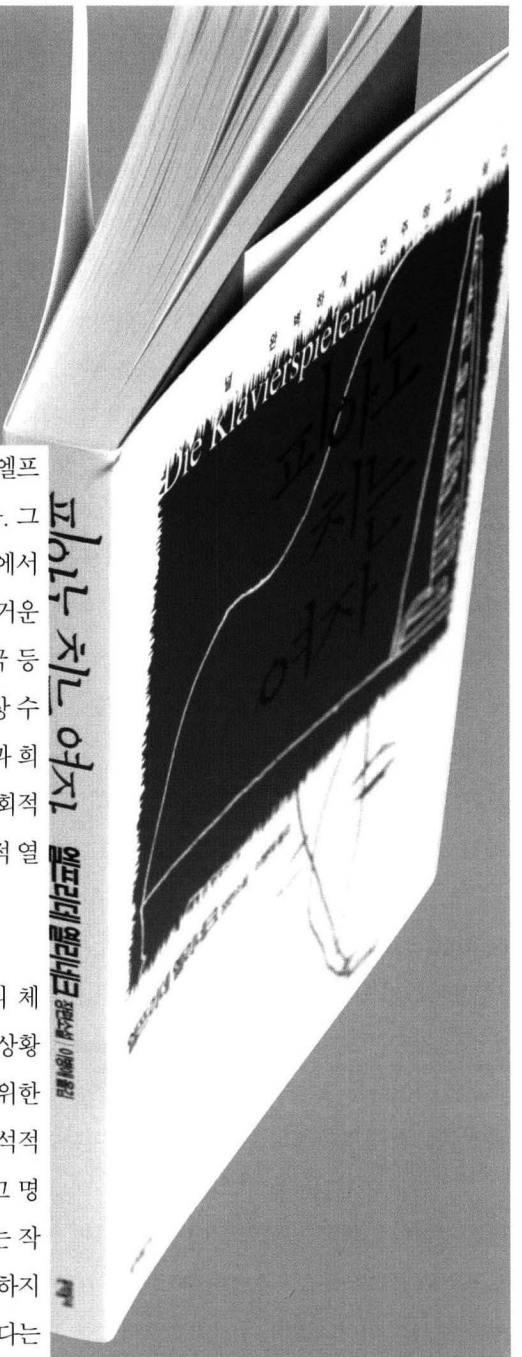
남성 중심주의적 폭력성에 대한 도발적인 글쓰기

2004 노벨문학상 수상한 엘프리데 옐리네크

윤시향



2004년도 노벨문학상을 오스트리아의 여성작가 '엘프리데 옐리네크'가 수상한 것은 '이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옐리네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독일어권 문학에서 도발적인 글쓰기로 평론가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으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작가다.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방송극 등 각종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활동은 이미 수많은 유명 문학상 수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옐리네크가 "소설과 희곡 작품에서 대립되는 목소리들의 음악적인 흐름을 통해 사회적 통념의 부조리한 횡포와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탁월한 언어적 열정을 선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옐리네크는 자신의 글쓰기를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급적으로나 성적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인 양 호도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면서 그의 작품에서 주로 정신분석적인 사도·마조히즘의 문제를 다루며 스스로 '통속 신화'라고 명명한, 완성된 현실로 이미 고정된 사회적 통념들을 비판하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옐리네크의 문학은 장르와 형식은 다양하지만, 가부장적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 억압받는 여성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가 다루는 주제는 인간 내면의 복합 심리, 동성애와 사도·마조히즘 등 왜곡된 성 문제를 다룬 작품에서 젠더이론의 형상화와 코소보전쟁 등 최근의 국제분쟁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다양하다.

옐리네크는 1946년에 오스트리아의 쉬타이어마르크주州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고향과 빈에서 보냈다. 그는 빈 음악학교에서 오르간으로 졸업자격시험을 치렀지만 음악을 중단하고 문학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옐리네크의 어머니는 딸이 특출한 재능을 지닌 천재라고 믿고 세계적 연주가로 성공시키려고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 어머니의 강압적인 교육과 지나친 간섭은 소설《피아노 치는 여자》에도 나타나는데, 옐리네크가 음악이 아닌 문학을 선택한 것은 이런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다. 또한 정신병을 앓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10대 시절로 옐리네크는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지내야 했다.

엘리네크는 조국 오스트리아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거듭된 신랄한 비판으로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정치적 성향은 1990년대 말 오스트리아의 극우정당이 집권하자 자신의 희곡을 오스트리아에서 공연금지 조처한 태도에도 나타난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기성사회에 대한 엘리네크의 비판과 조소는 너무나 과격하고 도발적이어서 "조국에 똥칠하는 여자"라는 비난을 받는 한편, "현대 독일어 문학권에서 가장 흥미로운 작가 중의 한 사람"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반된 평가에 대해 엘리네크는 글을 쓸 때 독자 확보나 희곡의 공연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표작으로는 한국에서도 출간된 《피아노 치는 여자》(1983)와 두 젊은 공장 노동자 여성의 삶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상태를 신랄하게 풍자한 《연인들》(1975) 그리고 대담한 성적 묘사로 외설 시비를 일으킨 《욕망》(1989) 등을 소설분야에서 들 수 있겠다. 《피아노 치는 여자》는 병적인 모녀관계로 인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피아노 교수와 어린 남자 제자 사이의 뒤틀린 사랑이 관음증과 마조히즘, 자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어둡고 잔혹한 인간 내면을 묘사한 이 작품은 심리분석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가치전복적인 관점과 노골적인 성묘사로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소설은 2001년에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칸영화제에서 전 세계 영화평론가들을 격론의 장으로 이끌며 그랑프리와 남녀주연상을 차지했다.

희곡 《노라가 남편을 떠난 후 일어난 일, 또는 사회의 지주》(1978)는 입센의 희곡 《노라 또는 인형의 집》과 《사회의 지주》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의 배경을 차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클라라 S.》(1982)는 여성의 자아실현이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가를 음악가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을 통해 보여주며, 흡혈귀가 나오는 그로테스크극인 《질병 또는 현대 여성》은 남자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여성해방과 여성의 복수에 관한 작품이다.

극단적인 내용과 더불어 엘리네크가 사용하는 언어 역시 독특하고 자극적이다. 이미 초기 글쓰기에서도 그의 실험성은 드러난다. 그는 공상과학소설이나 범죄소설, 또는 007영화와 같은 통속장르의 상투적 내용을 차용, 몽타주해서 상투화된 이미지나 여기서 자동 연상되는 사고와 감정을 해체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희곡의 말들은 고전적 대가의 명구들, 성경구절, 속담, 격언 그리고 매스컴에서 쓰인 말들로서 엘리네크는 이를 뒤집어 그 의미를 극도로 해학적이고 반어적으로 사용하여 비판적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희곡 속의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는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혼자 지껄이는 독백에 지나지 않거나 논리적 연관성이 결여되어 지극히 난해하다. 작품의 내용에서나 문체에서 '무서운 아이'로 불리는 엘리네크는 흔히 '주관성'이나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적 페미니즘 문학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정치적, 이념적 색채가 뚜렷하고 도발적인 참여문학으로서의 선동적 페미니즘 문학을 전개한 엘리네크는 페미니즘 문학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신화가 되어버린 가상 페미니즘을 파괴하는 '신화 파괴' 작업을 하고 있다.

지면이 〈출판저널〉이기 때문에 《피아노 치는 여자》 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필자는 1995년에 자유베를린 대학의 초빙교수로 독일에 머물며 뮌헨, 베를린 등 대도시의 대학에서 엘리네크를 한 학기 동안 세미나에서 다루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상처에 소금을 뿌려 비비는 아픔'을 느끼게 하는 이 작가를 한국에도 한번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일과 달콤함 그리고 편안함을 선호하는 한국 독서계에 이 '불편한' 작가는 찬물을 끼얹으며 잠을 깨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 작가의 '지독하고 아리고 쓰린' 맛이 한국 독서계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 망설이던 문학동네 출판사가 출판을 작정했다. 애초에 번역을 작정하고 있던 필자는 마침 연구 프로젝트가 생겨 대학은사(이병애 교수)에게 번역을 부탁드렸고 일 년여의 기간 후 《피아노 치는 여자》가 발간되었다.

《피아노 치는 여자》 엘프리데 옐리네크 지음 | 이병애 옮김 | 문학동네 | 358쪽 | 값 8,000원

◉ 이 글을 쓴 윤시향은 이화여자대학교 독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 수학, 자유베를린대학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한국브레히트학회 회장, 한국독어독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한국여성연극인협의회 공동대표, 연극평론가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15인의 거장들》 《독일 문학의 장면들》 《유럽영화에술》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어두운 밤 나는 적막한 집을 나섰다》 《햄릿머신》 등이 있다.